

하나님께 드리는 삶

로마서 12:1-3

김요셉 목사님

서론 : 세 가지 체험

복음 체험, 기도 체험, 전도 체험이다.

- (1) 복음만으로 행복해야 한다. 복음으로 만족해야 한다.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나의 복음이 나와야 한다.
- (2) 이 속에서 24시 기도 체험이 있어야 한다.
- (3) 그 안에서 전도 체험이 나와야 한다. 이것은 응답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1.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무엇인가?

- (1)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몸을, 내 삶을 드리는 것이다. 마16:16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다. 마28:19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다. 엡4:12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에 삶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다.
- (2) 변화를 받는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변화를 받는 것이다(엡 2:1-2).
- (3)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는 것이다(마6:33).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을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은, 그 자체가 복음을 붙잡는 것이다.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다. 그래서 21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삶 자체다. 전도자의 인생 여정이다. 복음을 붙잡아라.

2.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도다.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 시작하기 전부터 기도다. 그래서 빨리 순서를 바꿔야 한다. 학업, 산업, 하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서, 하다가 막히면 기도한다.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한다.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 이 기도 체험이 되어지면 그 다음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다. 기도로 시작되는 삶이어야 한다. 단1:17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공부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매사를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리야 되겠다.

3. 왜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는가?

왜 복음을 먼저 붙잡아야 하느냐 하는 말이다. 왜 중요한가?

- (1) 벰전2:2,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기 때문이다.

(2) 요15:4,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램넛트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복음 안에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된다. 누가 제일 많이 흔들나? 부모다. 램넛트는 고민을 별로 안 한다. 부모가 제일 많이 고민한다. 가만히 놔둬도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도 맺고, 잎사귀도 핀다. 시간표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

(3) 벰전5:8-9, 엡6:10, 성경은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다. 광명의 천사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계속 속임수로 역사하고 있다. 마귀는 지금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라.

- (4) 벰전1:23,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4.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1)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막1:35에,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새신자에게 기도를 반드시 가르쳐주어야 한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중직자, 산업인, 학생들이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2)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가? 수1:8-9에,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말씀이 왜 중요한가? 이게 안 되면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으로 붙잡아야 한다. 나의 말씀, 레마로 붙잡아야 한다. 이쪽 산, 저쪽 산 왔다갔다 하면 힘들다.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3)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딤후4:1-2에, 전도는 사람 앞에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다.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는 것이다. 말씀을 전파하라. 계속 전파하는 것이다. 입을 통해, 가정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4) 양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딤후2:2에, 증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완전히 충성된 자로 세우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로 만들면 안 된다. 구별된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머물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잘 했니 못 했니 하면서 헤매게 된다. 진짜 증인, 충성된 자, 전도자 되어야 교회가 힘이 넘친다. 어떻게 전도가 되었고 어떻게 양육했고 하는 포럼이 교회에 넘쳐야 한다. 그래서 양육을 잘 해야 한다. 내가 양육하는 디락방 제자가 진짜 증인이 되도록, 진짜 복음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가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진짜 생명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신다는 것이다. 기도응답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를 떠나서, 생명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신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래서 진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다. 그래서 양육할 때 증인으로, 충성된 자로 세워야 한다. 기관도 기준을 여기에 맞춰야 한다. 회장은 기도제목을 바꿔야 한다.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어떻게 증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어떻게 전도자의 길을

갈 것인지로 기도제목을 바꿔야 한다.

5.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마4:19,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사람의 말,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6. 주님이 이 일을 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마28:20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다.

(1) 영적인 축복이 있다. 마16:18,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된다. 엡2:1-3에, 전에는 우리도 그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빛으로 나왔다. 가는 모든 곳에 재앙이 무너지는 것이다. 밟는 모든 땅에 재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다.

(2) 육적인 축복도 받게 되어 있다. 막10:29-30, 100배의 축복이다. 바라지 않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 축복을 바라보고 따라가지 마라. 서론의 세 가지 체험을 향해서 가야 한다.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

(3) 기도응답이다. 마6:33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아닌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데 되어지는 축복이 오는 것이다. 진짜 복음 붙잡고 있는데 되어지는 것을 누려야 한다.

7.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로 가기를 기도하자.

결론 : 우리의 관심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관심이 다른 데 있다. '우리 애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 어떻게 해야 뒤처지지 않을까?' 늘 그런 생각이다. 그것은 불신자도 하는 생각이다. 우리의 관심을 정말 정확한 데에 두어야 한다.

(1) 예배다. 교회의 흐름, 방향을 전부 보는 것이 말씀이다. 금요 예배는 전 지역, 전 기관의 흐름을 보는 것이다. 주일 강단의 말씀으로 한 주간의 흐름을 다 보는 것이다. 교회의 흐름과 미래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정말 놓치면 안 된다. 예배는 생명같이 드려야 한다. 내 삶을 드려야 한다. 우리의 관심이 다.

(2) 이 속에 있으면 우리의 미션이 찾아진다. 나의 미션, 가정의 미션, 구역의 미션을 말씀 속에서 찾게 된다. 교회는 전부 말씀을 통해서 방향이 선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이것도 없게 된다. 예배 가운데서 미션이 나온다. 그래서 중고등부가, 어린이부가, 부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미션을 찾고 방향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교사들이 예배에 올 인해야 한다. 부모, 조부님들이 예배에 올 인해야 한다.

(3) 그러면 나의 캠프가 나온다. 업을 통한 캠프가 나온다. 부족

하지만 내 업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관심,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예배가 살아야 한다. 미리 와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미션을 발견해야 한다. 그 속에서 캠프를 발견해야 한다. 우리의 삶이 전부 하나님께 드리지는 영광의 삶,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 오늘부터 결단하라. 조금만 관심을 바꾸면 된다. 날마다 응답을 누리기를 바란다.